3

몽골 사막화·황사 방지···'전남 우호의 숲' 조성한다

도, 시베리아 낙엽송・비술나무 등 1000그루 심어 울란바토르 테를지 공원 한·몽 그린벨트 사업지구 김영록 지사 "기후위기 대응 국제 협력 모범사례"

전남도는 4일 몽골 울란바토르 테를지 국립공원의 한-몽 그린벨트 사업지구에 막화 방지를 위한 우호의 숲 조성 나무심 기 행사를 개최했다.

사,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, 이종근 한-몽 그린벨트 사업단장, 전남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

이들은 몽골 현지의 고온 건조한 기후 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시베리 던 것처럼 이번 나무심기 또한 국제협력 아 낙엽송, 비술나무 등 현지에서 생산된 3년생 묘목 1000그루를 심었다.

자갈땅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은 뒤 물 동이로 직접 물을 주는 등 힘든 작업이었 김청과 몽골 환경관광부 협력으로 설립 지만, 나무가 건강히 잘 자라 황사를 방 된 정부 간 협력기구로서 1단계(2007~ 지하고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극복 하도록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쏟았다.

이날 나무를 심은 곳은 한-몽 그린벨 트 사업단이 조성 중인 '민관협력 참여 숲' 구역으로 몽골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 고 한국 산림청이 공적 자금으로 기반을 구축한 곳이다.

'민관협력 참여숲' 지역에는 다양한 기 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파트 서 몽골 산림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사 너십 숲 모델로,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 전부, 이마트, IBK기업은행 등 13개 지 자체·민간 기업이 환경·사회·투명경영 나무심기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 (ESG) 활동 일환으로 사막화 방지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.

김영록 지사는 "나무심기 행사는 기후 위기 극복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류 공 30명 등 두 국가 관계관 50여명이 참여 동의 과제에 전남이 동참하는 소중한 노 력이다"며 "지난해 뉴욕에 전남 정원을 조성해 전통정원 문화를 세계와 공유했 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 시례가 될 것이다"고 강조했다.

> 한-몽그린벨트 사업단은 우리나라 산 2016년) 사업으로 3000여ha 나무심기, 2단계(2017~2021년) 사업으로 도시숲 1개소 40ha 조성, 3단계(2022년~) 사 업으로 산림복원과 산불 예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두 나라의 산림 협력에 앞 장서고 있다.

> > 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



몽골을 방문중인 김영록 지사가 4일 울란바토르 테를지 국립공원 내 한-몽 그린벨트 사업지구에서 몽골 산림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호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. 이번 행사에 는 김영록 지사,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, 이종근 한-몽 그린벨트 사업단장,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 30여명 등 양 국가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여했다.

아이 키우는 부담 완화…돌봄친화도시 조성

전남도,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사업 전국 최다 선정

전남도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 다를 기록했다. 한 지역 돌봄 기반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

'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 업' 공모에 광양시, 보성군, 강진군, 완도군 이 신청한 총 5개소가 모두 선정돼 전국 최

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은 야 터 1호다. 간시간 운영 확대와 돌봄 특화 프로그램 운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영을 지원해 맞벌이 돌봄 공백 가정을 돕 는 사업으로,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

개소마다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

공동육아나눔터 1호, 강진군 공동육아나눔 터 1.2호, 완도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

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'아이 키우 영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 기 좋은 전남' 실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

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"공동

입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50%씩 매칭된 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거점 으로,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는 광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부모 양시 꿈빛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, 보성군 가 안심하는 환경을 만드는 공간이다"며 "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역 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 앞으로도 시 •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운

한편 전남도는 34개소의 공동육아나눔

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

광주시, 인문투어 '소년의 길' 재개

11월까지 매주 토요일 '소년이온다' 주요 장소 탐방

길'은 소설 '소년이 온다' 속 '동호'가 지나 전체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.

후 4시 두 차례 무료로 운영된다. 전일빌딩245에서 시작해 5 • 18민주광장

광주시가 인문투어 '소년의 길'을 다시 의 시계탑, 상무관, 분수대, 옛 전남도청, 옛 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 (#인문투어 #소 광주적십자병원, 금남로 일대를 거쳐 5·18 년의 길 #전일빌딩 등)를 작성해 개인 사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무투어 '소년의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종료되는 코스이며, 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하면 추첨

온 주요장소를 함께 걸으며 광주의 역사 도슨트가 동행하며 소설속 내용과 함께 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, 9 각 장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참가자들에 광주의 역사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다.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(전일마당. 다"고 말했다.

com), 전화(062-233-0245), 현장 접수 (투어 시작 30분 전부터 전일빌딩 1층 북 카페) 등으로 가능하다.

참가자를 대상으로 '후기 이벤트'도 진 행한다. 인문투어 참여 뒤 후기를 현장 사 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.

중한 역사적 장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, ~11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 게 알기 쉽게 설명해 문학적 감동과 함께 문학과 광주의 역사를 함께 만나볼 수 있

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"광주의 소

는 인문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장승기 기자 sky@ 를 목표로 시·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 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6년까지 6개소 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 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.













뉴정원산업

한식기와형 담장

Tel. 061)373-9566~7 Homepage. www.jtbl.co.kr

기어블럭 본사공장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학포로862(품평리 629)

はなら 四天のひ

- ■전남도, 가을 드라이브 명소 4곳 추천

남도 해안 달리며 풍광·미식·힐링 '한꺼번에'









9월 추천관광지로 해안 드라이브코스 해남 목포구등대 해안도로는 서해 낙 인 여수 일레븐브릿지, 고흥 금산해안 조와 다도해의 드넓은 풍광이 한눈에 내 영광 백수해안도로 4곳을 선정했다.

경험할 수 있어 오감이 만족하기에 손 관문 역할을 한 역사적 건축물이다. 색이 없는 곳이다.

해의 풍경은 장관이다.

해안 해안 경관도로 15선'에 선정된 곳 으며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다. 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바이크와 자전거 다. 국도를 따라 오천쪽으로 달리면 다도 로 오감이 만족하는 힐링여행 하시길 해 비경이 펼쳐진다. 중간지점 거금생태 바란다"고 말했다. 숲은 면적 330만m²에 야생화 군락지, 숲

전남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관찰로, 구름다리 등이 조성됐다.

여수 일레븐브릿지·고흥 금산·목포구등대·영광 백수해안도로

경관도로, 해남 목포구등대 해안도로, _ 려다보이는 곳으로 에메랄드 바다와 낙 조 풍경으로 유명하다. 드라이브 코스의 각 코스마다 탁 트인 다도해의 풍광, 시작점인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 지역 대표 먹거리, 이색 체험을 동시에 년 축조된 7.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

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의 수려한 여수 일레븐브릿지는 낭도, 백야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 등 11개 섬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현재 다.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도 7개가 연결됐으며 2027년 8월 완공 예 로는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으며 드 정이다. 여수 돌산과 고흥 영남면을 한 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. 특히 노을이 번에 달릴 수 있어 환상적 드라이브 코 지는 무렵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탁 트 스로 주목받고 있다. 둔병, 낭도, 적금, 인 바다, 갯바위와 기암괴석이 어우러 팔영 등 대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다도 저 절경이 펼쳐진다. 곳곳에 마련된 전 망대에서는 서해 낙조를 조망하기에 좋 고흥 거금해안도로는 국토교통부 '남 다.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

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"전남 추 동호회의 필수 여행지로 소문난 곳이 전관광지에서 풍광, 미식, 이색체험으

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